

# 최우선 과제는 ‘북미정상회담’ 위한 비핵화 조치 논의

## 文 대통령, 내일 평양행

북미, 서로에 선행요구… 협상마혀 접점 제시, 대화 촉진 ‘우리의 역할’ 남북해법 수용땐 북미 합의 이를 것

‘비핵화조치→종전선언→항구적 평화 정착…’

오는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세계의 이목이 또 다시 남과 북에 집중되고 있다.

벌써 이번 정상회담까지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게 되는 문 대통령의 마음과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첫 단초가 이번 정상회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4·27 첫 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에 담겨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시 다렸다면 한 달 뒤 양 정상간 ‘번개만남’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위한 전조전 성격이 짙었다. 역사적인 북미회담까지 처음으로 성사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프 대통령의 만남뒤 잠시 주춤하고 있는 빠른 비핵화 조치와 이후의 종전선언, 그리고 체재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동시에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서로 상대에게 선이 행하라는 요구를 갖고 서로 막혀있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

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평양에서 다시 중재자로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남북관계도,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우리 측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다루길 희망했으나 북측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협상할 일’이라는 논리를 대며 피해왔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였다. 남북 정상 간에 핵 문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논의의 수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는 비핵화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더 구체화한 방법론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진전과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할 핵심 시안이어서다.

결국, 비핵화-평화체제구축의 입구에서 헤매는 북미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즉 종전선언에 연결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18일 평양행을 앞둔 문 대통령의 최대 미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文, 김·노 머물던 ‘백화원 영빈관’ 끝을 듯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 文 대통령, 2박3일 예상일정

첫날, 비행장서 주민동원 환영 행사  
2일차, 정상회담·산업현장 시찰  
3일차, 환송오찬 마치고 귀국 행

한국 대통령으로서 역대 세 번째로 평양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처럼 2박3일로 짜였다.

평양이 쉽게 왕래하기 힘든 곳이라는 점과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야말로 특별한 손님인 남측 정상에게 예를 다하고자 하는 북한의 입장이 고려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과 2007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2박3일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북한은 김·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잘) 맞이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오기를 기대하고 정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기로 한 만큼 방북 첫날인 18일 북한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성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13일 김 전 대통령이 특별기를 이용해 방북했을 때도 북한은 현재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성대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았고 북한 육·공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 남북 정상회담 예상 일정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체류 기간 동안 성대한 오찬과 환영 만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18일

#### ▶ 문 대통령 서해 직항로 이용 방북

- ④ 항공편 이용 (2000년 김대중 대통령 항공편 이용)
  - 평양 국제비행장 환영행사 예상 (2000년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영접, 환영식, 북한군 의장대 사열)

\*도로 양방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는 이른바 ‘연도환영’에 수만 명의 평양시민을 동원 예상

▶ 숙소

백화원 영빈관이 가장 유력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백화원 영빈관 이용)

#### ▶ 환영만찬

환영식 이후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 취했다가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 예상

19일

#### ▶ 정상회담

- 정상회담 첫날부터 열 수도 있지만 의제를 본격 논의하는 회담은 둘째 날 열릴 가능성
- 예상장소 : 백화원 영빈관 또는 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회의실

20일

#### ▶ 환송오찬 이후 귀환 예정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의 환영식 이후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소는 김·노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백화원 영빈관이 유력해 보인다.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은 정상급 외빈들이 올 때 북한이 제공하는 곳으로, 화단에 100여 종의 꽃이 피어있어 ‘백화원’(百花園)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첫날부터 남북 정상이 회담을 열 수도 있지만,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은 둘째 날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통령 방북 때는 도착 당일 상봉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하고 이를 때에도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때 역시 남북 정상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회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정상회담이 한 차례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백화원 영빈관도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회의실이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모두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다.

김정일 접견 시기에는 노동당 본부 청사를 ‘혁명의 수뇌부’로 부르며 어떤 외부 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 날의 경우 김·노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처럼 북측이 마련한 환송오찬을 마치고 귀환하는 일정이 될 것이 유력하다.

이율리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경의선 철도연결을 비롯한 남북 간 경협 진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한의 산업현장 방문 등이 2박 3일간의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환송오찬 전 평안남도 남포의 평화자동차 공장과 서해 갑문 등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문화 공연을 관람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전 대통령은 도착 당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전통무용과 기악곡을 중심으로 진행된 ‘평양성 사람’이라는 공연을 관람했고, 노 전 대통령은 둘째 날 저녁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봤다.



3차 남북회담 ‘언론사’도 준비 착착

18~20일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마지막 개소 준비를 하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는 이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인들을 위해 문을 연다.

/연합뉴스

## 곳곳서 생방송 중계·한반도기 설치

## 서울 전역 ‘평화의 물결’ 넘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서울 전역이 평화의 물결로 뒤덮인다.

서울시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LED 스크린 생중계, 대형 한반도기 설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누구나 역사적인 순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남측, DDP에 실시간 생중계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한다.

서울도서관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건너 25개 자치구 청사 외벽에 대형 한반도기를 설치한다.

서울광장 화단에는 꽃과 식물을 심어 한반도기를 형상화하고,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는 지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산책하며 역사적 대화를 나누 화제를 모은 ‘도보다리’를 재현한다.

서울로7017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에는 한반도기와 비둘기, 악수하는 이미지가 어우러진 영상이 노출된다. 세종 시청이 열린다.

/김정기 기자 hik1@